

2020년 3월 27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고용 불안 불구 기술주, 재정지출 수혜주 상승 마이크론 “데이터 센터 수요로 칩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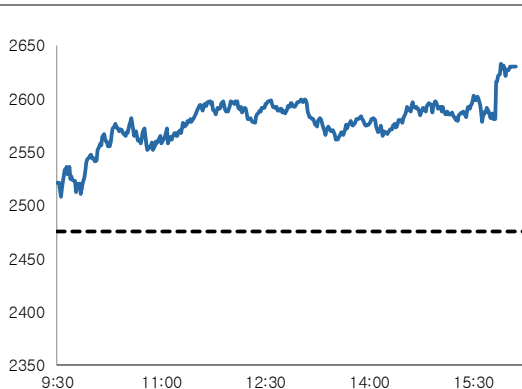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현재 악재 보다는 미래 호재에 주목

미 증시는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급증하는 등 고용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상승 출발. 전일 상원이 만장일치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자 그에 따른 수혜 종목들이 급등한 데 힘입은 것으로 추정. 더불어 마이크론(+5.39%)의 실적 발표에 따른 기술주의 강세도 영향. 시장 참여자들이 악재 보다는 호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등 투자심리 개선이 지수 상승을 견인 한 것으로 판단(다우 +6.38%, 나스닥 +5.60%, S&P500 +6.24%, 러셀 2000 +6.30%)

미국 신규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328만 3천 건으로 급증 해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를 높임. 그러나 노동부는 “코로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이번 급증은 예기치 않은 일이 아니다.” 라고 언급. 더불어 “상원에서 통과한 법안으로 기업들이 고용을 재차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몇 주안에 되돌림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주장해 우려를 완화. 주별로 보면 보잉 본사가 있는 펜실베이니아가 관련 산업의 위축으로 가장 많은 37.9 만 건으로 발표된 가운데 인접한 뉴저지도 15.5 만 건을 기록했으며, 19 일 이동 중지 명령을 발표한 캘리포니아가 18.7 만건을 기록. 전반적으로 서비스업과 항공 산업의 일자리 둔화가 현실화 된 것으로 추정. 이날 발표된 수치는 15~21 일 수집된 자료라는 점을 감안 22 일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린 뉴욕의 경우 8만 건에 그쳐 다음 주 발표 또한 크게 증가할 수 있음.

한편, 상원에서 2 조 달러 규모의 재정 지출에 대해 만장 일치로 통과. 특히 보잉 등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향후 항공 산업의 고용이 안정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 기반 고용 불안 우려는 완화. 보잉도 법안이 통과되자 “회사 최우선 과제는 직원을 보호하는 것” 이라고 발표하는 등 고용 안정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한 점도 투자심리에 긍정적. 이와 함께 지수 상승을 견인한 업종은 반도체 및 기술주. 이는 마이크론이 전일 실적 발표에서 데이터 센터 수요로 칩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한 데 힘입은 것으로 추정. 특히 재택 근무가 많아지자 노트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 점도 관련 기업들에 긍정적. 이에 힘입어 반도체를 비롯해 알파벳, MS 등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들이 상승 주도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종가	D-1	주요 동향	종가	D-1
KOSPI	1,686.24	-1.09	홍콩항행	23,352.34	-0.74
KOSDAQ	516.61	+2.16	영국	5,815.73	+2.24
DOW	22,552.17	+6.38	독일	10,000.96	+1.28
NASDAQ	7,797.54	+5.60	프랑스	4,543.58	+2.51
S&P 500	2,630.07	+6.24	스페인	7,033.20	+1.31
상하이종합	2,764.91	-0.60	그리스	573.35	+3.78
일본	18,664.60	-4.51	이탈리아	17,369.38	+0.7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6.79%

마이크론(+5.39%)는 양호한 실적 발표 및 데이터센터 향 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힘입어 상승했다. 인텔(+8.49%), 브로드컴(+11.78%), AMAT(+9.99%) 등 반도체 업종이 급등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79% 상승했다. 한편, 마이크론이 데이터센터 트래픽 증가를 언급한 데 힘입어 재택근무 수혜 종목인 시스코 시스템즈(+7.72%), 줌비디오(+2.20%) 등과 데이터센터 매출이 큰 알파벳(+5.56%), MS(+6.10%), 아마존(+3.69%) 등도 동반 상승했다. 다만, 줌 비디오와 아마존의 경우 최근 상승폭이 컸던 점을 감안 상승은 여타 종목에 비해 제한 되었다.

한편, 정부의 재정 지원 기대가 높아지자 보잉(+13.75%), 유나이티드 테크(+8.78%) 등 항공 업종이 급등했다. 더불어 코노코필립스(+3.72%), 옥시덴탈(+6.92%) 등 세일 기업들도 재정 지원 기대로 상승했다. JP모건(+6.97%), BOA(+7.68%), 웰스파고(+6.66%) 등 금융주는 에너지 업종 신용리스크 완화 및 남유럽 재정위기 우려 완화에 기반해 급등했다. 애플(+5.27%)은 물론 쿠팡(+7.40%), 스카이웍(+8.93%) 등 애플 관련주는 중국의 안정에 기반 아이폰 판매 증가 기대가 높아진 데 힘입어 상승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70%	대형 가치주 ETF(IVE)	+6.13%
에너지섹터 ETF(OIH)	+1.38%	중형 가치주 ETF(IWS)	+5.80%
소매업체 ETF(XRT)	+3.21%	소형 가치주 ETF(IWN)	+6.55%
금융섹터 ETF(XLF)	+6.38%	대형 성장주 ETF(VUG)	+5.49%
기술섹터 ETF(XLK)	+6.19%	중형 성장주 ETF(IWP)	+5.53%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3.60%	소형 성장주 ETF(IWO)	+5.73%
인터넷업체 ETF(FDN)	+5.16%	배당주 ETF(DVY)	+6.87%
리츠업체 ETF(XLRE)	+7.92%	신흥국 고배당 ETF(DEM)	+2.99%
주택건설업체 ETF(XHB)	+4.35%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3.55%
바이오섹터 ETF(IBB)	+4.70%	미국 국채 ETF(IEF)	+0.24%
헬스케어 ETF(XLV)	+6.64%	하이일드 ETF(JNK)	+4.15%
곡물 ETF(DBA)	-1.50%	물가연동채 ETF(TIP)	+0.51%
반도체 ETF(SMH)	+6.06%	Long/short ETF(BTAL)	+1.0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33.76	+6.24%	+21.70%	-31.11%
소재	289.32	+4.94%	+9.82%	-13.56%
산업재	520.58	+6.41%	+14.58%	-16.81%
경기소비재	817.74	+4.30%	+11.84%	-11.39%
필수소비재	554.03	+5.67%	+0.30%	-8.86%
헬스케어	1,015.18	+6.98%	+6.24%	-6.95%
금융	361.62	+6.43%	+11.88%	-20.05%
IT	1,449.82	+6.35%	+10.71%	-5.68%
커뮤니케이션	152.14	+6.05%	+4.91%	-10.96%
유틸리티	281.63	+8.39%	+7.49%	-13.25%
부동산	193.97	+7.81%	+9.17%	-16.9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우호적인 시장 환경

MSCI 한국 지수 ETF 는 3.46% MSCI 신흥 지수 ETF 는 3.79% 상승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1,683 계약 순매수한 가운데 11.35pt 상승한 238.95 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12.2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가 장 마감을 앞두고 미국 고용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로 매물이 급격히 출회되며 하락 전환했었다. 그러나 미 증시에서 보듯 시장 참여자들이 현재의 악재보다는 미래의 희망에 기반해 상승폭을 확대한 점은 오늘 한국 증시의 강세를 예상케 한다. 더 나아가 전일 영향이 크지 않았으나, 마이크론이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를 언급해 관련 기업들이 미 증시 강세를 이끈 점도 오늘 한국 증시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최근 미 증시가 코로나 이후 수혜업종(반도체, FANG, 제약 바이오 등)과 재정지출 수혜업종(항공, 에너지, 소비등)이 번갈아가면서 등락을 거듭했으나, 오늘은 두 수혜 업종 모두 강세를 보이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졌다는 점도 국내 증시 상승 요인이다. 더불어 NDF 달러/원 환율이 크게 하락하는 등 원화 강세 가능성이 높아 외국인의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우호적이다. 미 증시 마감 후 파월 연준 의장이 “자신감 회복될 때까지 제로금리 유지할 것이며, 경기 회복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한 점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중국을 상회한 8 만 1,285 명을 기록하는 등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고, 콜로라도, 미네소타 등 미국의 많은 주 정부들이 지속적으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고용 불안과 소비 위축 가능성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여기에 국제유가가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의지가 무색하게 전략 비축유 매입 계획 차질로 8% 가까이 급락하는 등 일부 상품들의 변동성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그렇지만, 오늘 한국 증시는 이러한 악재성 재료를 뒤로하고 호재성 재료에 기반해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지표 부진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28.2 만건)을 큰 폭으로 상회한 328.3 만 건으로 발표되었다. 서비스 및 항공, 교육 등의 실업자가 급증했다. 4 주 평균은 99 만 8,250 건으로 발표되었다.

미국 4 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는 2.1%로 수정치에서 바뀌지 않았다.

3 월 캔자스시티 연은 지수는 전월(5)을 크게 하회한 -17 로 발표되었다. 생산지수(8→-18)가 급락한 가운데 생산기대지수(21→-36) 등 6 개월 후를 말해주는 기대지수(16→-19)가 큰 폭으로 급락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전략비축유 매입 공고 철회 후 급락

국제유가는 미국이 적극적인 개입한다고 발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비축유 매입 계획에 차질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되자 급락했다. 실제 미 에너지부는 전략비축유 3 천만 배럴 매입공고를 발표했으나, 오늘 예산 미 승인을 이유로 공고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 국제유가는 급격하게 하락했다. 여기에 코로나 이슈가 지속적으로 수요 둔화 우려를 자극했다는 점도 부정적이다.

달러화는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례 없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후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특히 최근 강세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 수급적인 요인 또한 영향을 줬다. 유로화는 ECB 가 국가별 국채 매입 한도를 제거한다고 발표하자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 불안을 완화시킨데 힘입어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신규실업 수당 청구건수가 급증하자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여파로 하락했다. 다만, 일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하락폭은 제한되었다. 한편, 7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41 배)을 상회한 2.76 배를 기록했고, 간접입찰 또한 12 개월 평균(60.7%) 보다 증가한 62.4%를 기록하는 등 국채수요 증가도 국채금리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달러 약세 및 고용불안 영향으로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일부 품목이 하락하기도 했으나, 달러 약세에 기반해 상승한 품목도 나오는 등 혼조 양상을 보였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22.60	-7.72	-12.77	Dollar Index	99,345	-1.69	-3.32
브렌트유	26.34	-3.83	-7.48	EUR/USD	1.1044	+1.49	+3.29
금	1,660.30	+1.59	+12.01	USD/JPY	109.41	-1.62	-1.17
은	14.676	-1.32	+20.95	GBP/USD	1.2199	+2.70	+6.22
알루미늄	1,536.00	-0.10	-5.77	USD/CHF	0.9625	-1.51	-2.38
전기동	4,804.00	-1.05	-0.44	AUD/USD	0.6072	+1.90	+5.73
아연	1,860.00	+1.31	+0.70	USD/CAD	1.4041	-1.06	-3.24
옥수수	348.75	+0.07	+0.94	USD/BRL	5.0138	-0.46	-1.59
밀	569.00	-1.90	+6.36	USD/CNH	7.0789	-0.67	-1.06
대두	880.25	-0.14	+4.39	USD/KRW	1232.80	+0.24	-4.11
커피	124.65	-4.08	+10.60	USD/KRW NDF1M	1212.25	-0.86	-3.41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0.832	-3.54	-30.85	스페인	0.563	-30.50	-31.20
한국	1.505	-11.50	-16.50	포르투갈	0.706	-34.20	-37.40
일본	0.002	-4.80	-8.10	그리스	1.563	-72.80	-84.40
독일	-0.361	-9.90	-16.80	이탈리아	1.221	-31.80	-51.60